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50, No.5(2014), pp. 115-135.

경제적 · 사회적 요인에 의한 무용공연 시장 수요분석

이희영* · 박인자**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 의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의 의식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질적으로 향상된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여 각종 여가상품의 개발과 보급이 다양하게 발전하여 왔고, 이와 함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또한 더욱 커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공연예술을 즐기며 향유하려는 관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무용공연예술은 그 특성상 무대라는 특정된 장소에서 공연자에게 의해 실연(공연)되는 것으로, 같은 시간에 사람들(관객)이 함께 모여 관람 또는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무대를 매개로하여 공급(공연자)과 수요(관객)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시간적 · 공간적인 제약과 더불어 공연자와 관람객이 같은 장소에 함께 있어야 하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연현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무용공연예술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 말할 수 있지만, 무용을 포함한 이러한 공연예술은 다른 문화산업에 비해서 윈도우효과(window effects)[1]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무용공연예술은 여타의 다른 공연예술보다도 소비기반이 더욱 더 취약한 편이다. 2010년 문화향수실태조사[2]에 따르면 예술분야별 연간 관람비율은 영화가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극(11.2%), 미술전시회(9.5%), 대중가요콘서트/연예(7.6%), 전통예술공연(5.7%), 클래식음악회/오페라(4.8%), 문학행사(3.8%), 무용(1.4%) 순으로, 여타의 예술장르 보다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전체 관람객100명

* 숙명여자 대학교 무용과 박사과정
** 숙명여자 대학교 무용과 교수, ijpark@sookmyung.ac.kr

1) 하나의 콘텐츠가 윈도우를 달리하여 계속 소비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다음에는 비디오나 DVD로, 그 다음 윈도우에선 유료 TV시청으로, 공중파 TV으로 윈도우를 다르게 하여 소비되는 것이다.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0). 문화향수실태조사.

www.kci.go.kr

중 1명 정도 만 무용공연을 관람을 하였다는 것이 된다.

무용공연의 낮은 수요 개선에 앞서 거시적 관점에서 어떠한 요인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무용공연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마케팅 중심의 수요창출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및 가설

1. 무용공연시장의 규모

국내 공연시장규모는 미국의 약 50분의1, 일본의 10분의1로서 공연인구의 부족과 공연문화의 비활성화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적은 규모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공연예술장르인 뮤지컬 시장은 5,000억 원 수준으로 우리나라 총 공연시장의 3.5배에 해당한다.[3] 최근 6년간 한국의 공연시장 규모의 추이를 보면, 공연시설은 2007년 662개에서 2012년에는 944개로 282개의 시설이 늘어났고, 종사자 수도 2007년 9,037명에서 2012년 11,224명으로 매출액은 2007년 2,880억 원에서 2012년 3,772억 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연단체는 2008년 2,440개 단체에서 2012년 2,108개로 332개가 감소하였고, 종사자수도 2008년 80,517명에서 2012년 50,847명으로 29,670명이 또한 감소한 반면, 매출액은 2008년 2,322억 원에서 2012년 3,359억 원으로 1,037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공연단체와 이에 따른 종사자수에서는 감소추세가 있었지만, 전반전인 공연시장은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4]

무용공연시장을 정의하는 방법은 금액, 관객 수, 공연 횟수, 공연건수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며, 그 중에서 대표성을 가진 요소의 선정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용공연시장의 상업화 (Commercialization) 또는 산업화 (Industrialization)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 시장을 논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관객 수 또는 금액이 사용된다. 영화는 그 시작부터 상업성을 가지고 시작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건수 및 횟수의 의미보다는 세밀한 지표인 관객 수가 대표적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용된다. 2000-2012년 한국의 무용공연시장 성장을 살펴보면, 상업성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업성을 가졌다는 것은 단일공연이 흥행요소를 갖춰 한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횟수의 공연을 갖고, 이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손익분기점 BEP(Break Even Point)을 넘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로서 백 만 달러 예산 뮤지컬공연에서 티켓가격이 30달러인 500석 규모의 공연장에서 객석점유율 83%를 차지했다고 가정할 때, 공연 횟수가 8회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본 것이다.[5]

무용공연 횟수의 증가를 위해서는 공급자위주의 공연이 아닌 수요자, 즉 관객의 취향과 트랜드를 파

3) 고정민(2003), 산업화에 접어든 공연예술, 삼성경제 연구소.
4) 공연예술실태조사(2013).
5) 고정민(2003), 산업화에 접어든 공연예술, 삼성경제 연구소.

www.kci.go.kr

악하여 관객의 관심을 모으고 이것이 유료티켓의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무용공연의 상황을 보면, 2012년 한 해 동안 공연된 무용공연은 한 건당 2.17회의 공연 횟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다시 연간 공연된 공연횟수당 건수로 살펴보면 단 1회만을 가졌던 경우가 69.70%(1,026건)이며, 공연 1건당 2회의 공연을 가졌던 경우는 19.90%(294건)으로 단 1건의 무용공연에서 1회의 공연을 가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6] 한국문화예술원의 문예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연 당 평균 2회를 넘은 것은 2010년, 2012년 2회 뿐이다. 전체 공연의 89.6% 공연이 평균 2회 이하라는 것은, 현재 한국의 무용공연시장이 상업화 이전단계라는 것이며, 관객수,공연횟수보다는 공연자체(건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공연시장에서 다른 장르에 비해 비교적 산업화의 단계를 잘 밟아나가고 있는 뮤지컬을 보면 2013년 (2012년 기준) 연간 공연 횟수 42,681회, 연간 공연건수 4,462건이며, 2012년(2011년 기준) 연간 공연 횟수는 41,436회, 공연건수 3,790건이다, 이를 다시 공연 횟수를 건수로 나누어보면 뮤지컬은 2013년 공연 1건당 평균 9.5회 공연을 하였으며, 2012년에는 공연 건당 10.9회를 공연하였다.[7]

한국의 무용공연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는 공연건수, 공연 횟수, 관객 수, 금액 중 공연건수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고,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초로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가설은 한국의 무용공연 시장은 공연건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2. 무용시장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과 경제적・사회적 요인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무용공연과 관련하여 공연활성화나 관객유입(김효정 2011, 이정직 2011, 송윤경 2010[8], 최정은 2010, 허인정 2010, 진수영 2008[9], 전우리 2008, 최윤영 2006, 조선하 2005, 최현주 2002[10])등을 위한 다방면의 마케팅적 입장에서의 관심과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온 반면, 무용공연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무용공연 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시장개념으로서의 이해와 접근은 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문화예술의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된다. 소득이 늘어나도 소비자의 필수재에 대한 소비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사치재로 구분되는 문화예술관련 지출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GDP가 4%이상 증가하면 문화예술소비는 GDP의 증가율인 4%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지만, GDP가 4%미만이면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GDP의 증가율보다 더 낮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징은 고급문화상품일수록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11]

예술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위더스(Withers,1980)[12]와 지바(Zieba,2009)[13]의 연구가 있다. 두 사람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여가시간의 가치를 반영한 총소득의

6) 문예연감(2013).
7) 공연예술실태조사(2013).
8) 송윤경(2010),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마케팅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9) 진수영(2008),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다각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0) 최현주(2002),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략변수의 탐색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1) 고정민(2007), 문화콘텐츠 경영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12) Withders, G.(1980). Unbalance growth and the demand for performing arts: An econometrics analysis, *Southern Economic Journal* 46(3), pp.735-742.
13) Ziba, M.(2009), Full-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German public theatre-income, *Journal*

www.kci.go.kr

소득 탄력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는 예술수요에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두 사람 모두 1보다 낮게 나와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의 탄력적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술수요에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은 총소득에 대해서 예술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총소득의 증감에 따라 예술수요가 민감하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탄력적이라 함은 공연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공연가격(티켓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다고 해서 공연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지바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보다 소득탄력성(소득의 증가여부에 따른 수요도)이 높게나왔으며, 티켓가격이 높아지면 공연수요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공연수요도 증가하므로 공연예술은 소득이 증가하고 가격이 비싸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사치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에 있어서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가 중요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이다. 브라질에서의 문화예술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분석한 연구에서 디니즈와 마샤도(Diniz and Machado,2011)[14]는 소비자의 소득과 교육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지역에 따른 수요-공급과 역사적-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가계수지자료를 이용하여 공연예술의 문화서비스수요를 분석한 이진면(2011)[15]의 연구에서는 가격탄력성이 소득탄력성보다 크게 나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문화서비스(공연서비스, 문화시설서비스, 기타문화서비스)간에는 보완관계(complement goods)가 성립하고, 오락운동서비스 간에는 대체관계(substitute goods)가 형성되기 때문에 잠재고객을 통한 공연예술수요의 증가를 위해서는 대체관계에 있는 오락운동 서비스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역이나 국가 전체의 소비계정을 사용하여 공연예술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이다.

성제환(2012)[16]은 문화향수실태조사(2003~2008)를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소비자에 축적된 문화・예술자본과 문화・예술상품 수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동호회에 참여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 소비 자본을 축적한 소비자일수록, 문화・예술상품을 소비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의 독립변수들보다도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상품의 문화적 가치는 일반상품이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처럼 상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완전히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축적되었을 때 이러한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상품의 효용가치가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술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별 가처분소득, 문화소비비용, 취향, 성별, 연령, 문화교육수준, 여가비지출 규모, 가용여가시간, 직업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잠재적 공연예술 관객층의 수요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수요의 요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하나의 요인만이 아닌 상호 복합적인 작용 속에서 예술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술수요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를 경제적 관점 및 사회적 관점으로 재정리를 하였다. 또한, 각각의 핵심요소에 대한 한국 무용시

---

of cultual Economics 33(2), pp.85-108.

14) Diniz, S. & Machado, A.(2011), Analysis of the consumtion of artistic-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Brazil.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5, pp.1-18.

15) 이진면・최용재(2011), 가계의 문화서비스수요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원 24(1), pp.203-217.

16) 성제환(2012), 문화 소비자본이 문화・예술상품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5(1), pp.67-93.

장 수요의 연계성과 상호 복합적인 작용 속에서의 연계성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성제환(2003)[17], 디니즈(Diniz,2009)는 도시와 비도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문화인프라의 중앙 집중적인 성격으로 문화콘텐츠의 빠른 유입, 공연인력의 자유로운 유동성(무용수, 공연관련 전문 인력 등), 교통이나 서비스 시설의 편의성 등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 비도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지역에 따른 공급의 차이는 지역 간의 문화수준이나 문화관련 콘텐츠, 인프라의 격차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공연장과 같은 제반 시설의 확충, 전문 인력의 원활한 투입, 콘텐츠 유입 등과 관련하여 지역 간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택(2002)[18]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인프라는 우리나라 전체의 4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연문화의 공급과 소비에 있어서 문화공급 수준이 높은 지역이 문화소비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역사적 요인, 정치 및 행정, 인구, 경제, 교육사회적 측면에 대한 도시적 차이를 그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12년간 경제적, 사회적 요인과 무용시장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무용시장수요에 대한 계량적 관계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인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경제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이 개별적, 상호 연계적으로 무용공연시장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도시와 비도시간의 비교를 통해 정(+)의 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무용공연의 재화적 특수성

무용공연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무용공연을 재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화 특성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 (예, 기술 혁신을 통해 신규시장 개척) 또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 (예,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량 증대)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무용공연상품은 관객이 구매하여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공연의 가치를 알 수 없는 경험재(Experience goods)이며,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은 무형성의 특징과 생산(공연자)과 소비(관객)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분리적 성격, 무용공연자의 숙련도나 공연 날의 컨디션 그리고, 공연장이나 공연 장소에 투입되는 인적자원에 따라 공연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이질성을 가진다. 프로이드는 공연 날 관객들의 성향과 그 모인 정도에 따라 집단적 심리주의가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알 수 없다[19]고 하였다. 이러한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무용공연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밴드왜건(Bandwagon Effect)[20]이나 쏠림현상(Herd Effect)[21]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무용공연은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상품처럼 판매하고 남은 상품을 재고로 남겨두었다가 판매할 수도 없다. 공연이 끝나면 바로 없어져 버리는 일회성의 예술로 저장이나 재생산이 불가능한 소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용공연의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을 고려하면, 일반적 재화

17) 성제환(2003), 문화예술상품 소비결정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문화예술상품의 체험재적 특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연구』 10, pp.87-113.
18) 신현택(2002), 지역 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 진수영(2008),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다각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지인이나 모임 등에서 구매한 것을 따라하거나, 인기가 높은 스타가 나오는 광고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다수의 판단에 대한 추종을 의미한다. 재화의 객관화된 지식이 없을 때 군중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21) 의사결정자들이 자신의 정보나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나 투자자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쓰이며 군집행동이라고도 한다.

www.kci.go.kr

보다는 서비스 적인 재화로 분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최현주 2002, 황순학 2014[22], 진수영 2008, 송윤경 2010)

문화예술 시장에 대한 분석은 공급관점으로부터 문제인식이 시작되었으며, 1965년 보몰(Baumal)과 보웬(Bowen)의 비용질병에 관한 연구가 시작 이였다. 그러나 국민의 복지혜택 증가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증대로 문화예술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급자 위주의 지원정책만으로는 문화예술이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데는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후 예술소비에 대한 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연구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의 공연예술이 문화예술산업(영화, 대중음악 등)과 같이 산업적인 측면으로의 접근보다는 순수예술의 측면으로만 여겨지다가 최근 대형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 공연예술의 흥행성공으로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공연예술 장르에서도 공연예술의 산업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3]

이러한 무용공연의 서비스 재화 특성과, 문화예술의 연구 과정을 종합해 보면, 무용공연시장 자체를 수요 중심적 또는 공급 중심적 시장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요 중심의 시장임을 분명하겠지만, 결국 단기적으로 공급자 관점의 시장 성장 동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장의 성장과정에서 공급 측면의 요인들도 일부 논의를 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자료출처: 출처

경제적/사회적지표가 무용공연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시계열자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과 국가 통계포털사이트(KOSIS)의 2000년~2012년까지 자료와 문화관광부의 문화시설이용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연건수 및 공연 횟수는 2000년~2012년의 기간 동안 매년 발표되는 문예연감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계열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장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가 필요하다. 국가 통계포털사이트(KOSIS)를 통한 장기간의 자료수집은 가능하나, 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은 1999년부터 매해 출간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통계현황이 나와 있어 그 해당 년도를 2000년~2012년으로 제한하였다. 독립변수는 국가 KOSIS 자료 중 국민총소득(GNI)와 1인당 총소득(1인당GNI), 가족 내 문화오락소비액 비중, 경제활동인구, 교육수준을 선정하였다. 문화오락소비액 비중은 가계목적별 최종소비지출 하위 항목에서, 교육수준(대졸이상비중)은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의 하위항목에서 채택하였다. 공연장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통계중 문화시설이용에 나와 있는 공연장별 가동률에 따른 공연장수를 선별하였으며, 공연장 같은 경우는 매년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2007년, 2008년, 2010년의 자료를 사용하고 이를 다시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용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사회적 요인으로서 남・녀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요인도 포함하려 했으나 문예연

22) 황순학(2014), 오페라 공연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객유형분석과 유입전략,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3) 이용민(2008), 서비스 산업의 수익 극대화 모델에 관한 연구: 국내 공연예술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www.kci.go.kr

감과 국가통계사이트에서 본 연구에 필요한 2000년~2012년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공연관람 횟수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여 사회적 요인의 하위 단위인 성별과 연령은 제외시켰다.

〈표 1〉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 자료 수집 기간/출처

선정내용	기간	출처
공연건수 및 횟수	2000년~2012년	문예연감
국민 총소득(GNI)	2000년~2012년	국가통계포털사이트 (KOSIS)
1인당 총소득(GNI)	2000년~2012년	
문화오락소비액 비중	2000년 2012년	
경제활동인구	2000년~2012년	
교육수준	2000년~2012년	
공연장 수	2007년, 2008년, 2010년 (지역별)	문화관광부, KOSIS

2. 조사대상: 무용공연시장

주요 경제적 및 사회적 지표와 공연 시 장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연시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한 해 동안의 공연시장 규모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text{연간 공연 시장규모} = \left(\sum_{i=0}^{i=n} \text{공연당횟수}i \times \text{횟수당관객수}i \times \text{인당평균입장료}i\right) + \text{보조금}$$

$(n = \text{1년간 공연건수})$

이를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3개 항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text{시장규모} \approx f(\text{공연건수}) \text{ 또는 } f(\text{공연횟수}) \text{ 또는 } f(\text{관객수})$$

공연시장수요 분석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연시장이 공연건수, 공연 횟수, 관객 수 중 어떤 항목이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 및 정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연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공연산업은 정부보조금, 개인발표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있고 대중성을 가지고 공연을 보러오는 관객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공연 횟수가 증가한다. 공연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공연자체의 상업성이 좋아지고, 공연 자체의 수익창출이 가능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후 공연 횟수별 관객 수/입장료 등의 증가가 추가 수익성을 결정하게 된다. 한국의 무용공연시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관객 수보다는 공연건수 및 공연 횟수가 좀 더 선행성이 있는 지표로 판단되어 진다. 공연건수 및 공연 횟수에 대한 분석과 정의는 다음 장에서 상세 설명할 예정이다.

3. 조사도구: 경제적, 사회적 요인

www.kci.go.kr

소득, 인구, 인프라 영역과 무용공연 또는 문화예술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나와 있다. 그러나 2~3개 지표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대부 분이였으며,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총체적 분석이나,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로 접근한 연구는 제한적 이였다.

〈표 2〉 경제적, 사회적 6대 지표 선정근거와 선행연구

분류	지표	선정근거	선행연구
경제적 요인	국민총소득 (GNI)	개인소득과 사회적 인프라 투자에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1인당 총소득 (GNI)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공연예술향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무용공연예술 소비에도영향을 미치게 된다.	디니즈, 마샤도(Diniz and Machado, 2011) 최영섭규, 김민규, 2000)[24] 위더스(Withers, G.(1980)
	문화오락 소비액 비중	무용공연예술의 소비는 가계의 실질 소득과 지출에 따라 수요가 변동된다.	이진면, 최용재(2011)[25] 성제환(2003)
사회적 요인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가 많아질수록 관객 수는 증가한다.	허식, 윤수영(2013)[26]
	공연장수	무용공연예술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공연장이라는 장소가 필수요소이다.	윤대식(2003)[27]
	교육수준 (대졸이상)	같은 규모의 경제자본하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라 문화소비가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디니즈, 마샤도(Diniz and Machado,2009) 최영섭, 김민규(2000) 보르고노비(Borgonovi,2004)[28] 이만제(1997)[29]

본 연구에서는 공연예술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 3개와 사회적 요인 3가지를 가지고 한국무용공연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제적 지표로는 대표적 거시지표인 국민총소득(GNI)[30]과 1인당 총소득 및 문화오락소비액 비중을 선정하였다.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국내총생산(GDP)[31], 국내총소득(GDI)[32], 국민총생산(GNP)[33], 국민총소득(GNI)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문화소비는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 (Product)보다는 소득(Income)에 더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현 글로벌 상황에서는 지역적 의미(Domestic) 보다는 광의 개념인 국민 (National)이 더 설득력을 가지므로

24) 최영섭, 김민규(2000), 한국의 문화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일고찰: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대한 실증분석, 『문화정책논총』 12, pp.229-260.
25) 이진면, 최용재(2011), 가계의 문화서비스수요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원』 24(1), pp.203-217.
26) 허식, 윤수영(2013), 문화서비스의 가구 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5(4), pp.21-53.
27) 윤대식, 진원형, 김상황, 육태숙(2003), 대구시민의 전시공연문화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4), pp.21-42.
28) Francesca Borgonovi(2004), Perfoming arts attendance: an economic approach, *Applied Economics* 36(17), pp.1871-1885.
29) 이만제(1997), 한국 PC통신 문화에 관한 연구: Pierre Bourdieu의 장, 아비투스, 문화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30) Gross National Income (GNI): 국민이 한해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
31) 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민 총생산에서 해외의 순수한 소득을 제외한 지표.
32) Gross Domestic Income (GDI): 국가가 일정 기간 벌어들인 모든 최종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GDP에서 환율이나 수출입 단가 등의 변화로 생긴 무역 손익을 더한 금액.
33) Gross National Product (GNP): 한 해 동안 국민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부가 가치.

GNI를 선정하였다.

사회적 지표로는 경제활동인구, 공연장, 교육수준을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관객 수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공연장이라는 특수한 제반시설은 공연예술이 관객과 만나게 되는 접전의 장소이자, 공연예술작품의 생산, 유통,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공연예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선정되었다. 교육수준 (대졸이상 비중)은 문화예술 수요를 결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살펴볼 것이다. 위와 같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표 선정근거 및 선행연구에 대해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4. 분석모델 및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연구 목적에 따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지표의 각각의 영향과 상호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 회귀 및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결정계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Correlation)을 나타내며, 코헨(Cohen)[34]에 따르면 사회과학분야 조사방법에서 R〉13%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기준이 낮은 이유는 종속 및 독립변수가 행동지표가 아닌 심리적인 지표이기 때문이다.[35]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은 심리적 지표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과학분야 조사방법 기준보다 높은 공학연구에서 적용하는 70%이상을 기준을 삼고자 한다. R〉70%를 기준으로 하여 〈표 3〉과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분류하였다.

〈표 3〉 R^2 값에 따른 상관관계 정도

R	R^2값	상관관계 정도
90% ≤ R	0.81 ≤ R^2	높음
80% ≤ R 〈 90	0.64 ≤ R^2〈0.81	보통
70%≤ R 〈80%	0.49 ≤ R^2〈 0.64	낮음
R 〈 70%	R^2〈 0.49	없음

IV. 연구결과

1. 무용시장 대표요인 분석

무용공연시장을 대표하는 종속변수 선정을 위해 선행연구에서도 많이 언급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공연장수를 가지고 공연건수와 공연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 회귀분석 결과인 〈표 4〉, 〈표 5〉를 보면 1인당 GNI(독립변수)와 공연건수, 공연 횟수는 서로 유의한 (p〈.01, p〈.05)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건수의 경우 1인당 GNI (β=913), 공연 횟수의 경우 1인당 GNI(β

34) Cohen, J.(199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2nd ed.)(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illsdale, New Jersey).
35) 이일현(2014), 『EeasyFlow회귀분석』(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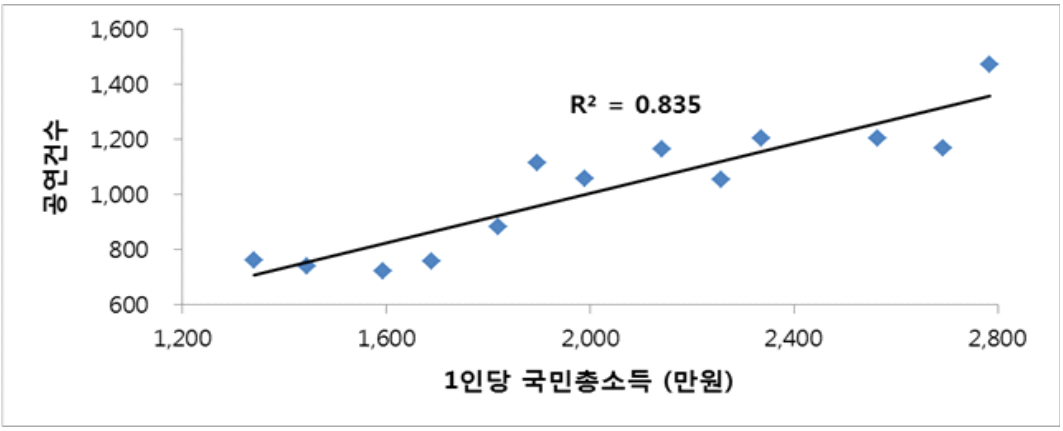
=0.79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공연건수와 1인당 GNI 상관관계는 83.5% (R^2=.835, 높음)으로, 공연 횟수와 1인당 GNI 상관관계는 63.6% (R^2=.636, 낮음)으로 분석되었다.

〈표 4〉 공연건수 증가와 1인당 GNI의 관계

	B(계수)	표준편차	β	t 통계량	p-값
(상수)	99.85255	126.8062		0.787442	0.4476
1인당 GNI	0.452542	0.060648	0.913	7.461756	1.25E-05
	R^2=0.835		F=55.678		

〈표 5〉 공연 횟수 증가와 1인당 GNI의 관계

	B(계수)	표준편차	β	t 통계량	p-값
(상수)	168.0935	406.1095		0.413912	0.6869
1인당 GNI	0.852602	0.194232	0.797	4.389609	0.0011
	R^2=0.636		F=19.268		



〈그림 1〉 공연건수와 1인당 국민총소득과의 관계

앞장에서 언급되었듯이 63.6%는 사회과학분야에서 높은 수치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계성에 대해서는 공학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다. 〈그림 1〉은 공연건수와 1인당 GNI의 선형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분석을 공연장수를 적용하여 실시하고자, 문화관광부 등록공연장 현황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2007년, 2008년, 2010년만이 집계되어있어 이를 다시 행정구역별로 나누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표 6〉, 〈표 7〉를 보면 모두 유의한 (p〈.01, p〈.01)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연계성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수에 대한 공연건수 상관관계는 93.1% (R^2=.931), 공연장수에 대한 공연 횟수 상관관계는 88.6% (R^2=.886)로 둘 다 상관관계가 높음으로 나타났다. 1인당 총소득(GNI) 및 공연장수 분석결과를 근거로 공연건수가 공연 횟수 보다 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공연건수를 회귀분석을 위한 종속지표로 선정

www.kci.go.kr

하였다.

〈표 6〉 공연건수 증가와 공연장수와 관계

	B(계수)	표준편차	β	t 통계량	p-값
(상수)	-19.1503	5.793647		-3.3054	0.002
공연장수	1.532306	0.061492	0.964898	24.91873	0.000
	R^2=0.931		F=620.94		

〈표 7〉 공연 횟수 증가와 공연장수와 관계

	B(계수)	표준편차	β	t 통계량	p-값
(상수)	-90.1527	18.08573		-4.98474	0.000
공연장수	3.633085	0.191957	0.941382	18.92658	0.000
	R^2=0.886		F=358.21		

2. 경제적 · 사회적 요인과 공연건수와의 상관관계 분석

공연건수를 무용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선정하여 공연건수를 종속변수로 고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독립변수간의 단 회귀 분석을 하여 〈표 8〉의 결과를 얻었다. 국민 총소득(GNI)과 공연건수를 분석한 결과는 R^2=0.832 (p〈.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국민총소득은 앞장에서 설명된 1인당 총소득(GNI) 및 공연장수 (인프라 투자측면)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설명된다. 1인당 GNI는 앞장에서 이미 분석이 되었으며, R^2=0.835 (p〈.0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제적 요인 중 마지막 지표는 문화소비액 비중이다. 가계총소비 지출액에서 문화소비액 비중을 표시한 것으로, 문화소비액 비중의 경우 p〉.05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로 인한 결과로 R^2=0.238 (23.8%)은 〈표 3〉 기준에 의하면 상관관계 없음으로 나왔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공연장, 교육수준 3가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경제활동인구수는 공연건수와 R^2=0.747 (p〈.01)을 나타내어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공연장수는 R^2=0.931 (p〈.01)의 높은 연계성을 보였다. 무용공연에서는 관객과 예술작품이 만날 수 있는 공연장은 필수조건으로 높은 연계성을 가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기준을 대졸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졸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한국사회적인 통념상 선택적 교육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며, R^2=0.842 (p〈.01) 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www.kci.go.kr

〈표 8〉 경제적 및 사회적 6대 지표와 무용공연시장간의 단 회귀 결과

분류	지표	R^2	p-값	Data 구간
경제적 요인	국민총소득(GNI)	0.832	0.000	2000~2012년
	1인당 GNI	0.835	0.000	2000~2012년
	문화오락소비액 비중	0.238	0.090	2000~2012년
사회적 요인	경제활동인구	0.747	0.002	2000~2012년
	공연장수	0.931	0.000	2007-08, 10년 지역별
	교육수준 (대졸이상비중)	0.842	0.000	2000년~2012년

〈표 8〉에 있는 6개 지표에 대한 유의성이 낮은 문화소비액비중 (p〉.05)과 data 구간이 상이한 공연장수를 제외하고 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4개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중회귀분석이 〈표 10〉에 보는 것처럼 p〉.05로 독립변수들이 유의하지 않는 것처럼 분석되었다. 이는 다중공선성 효과로 판단되어 진다. 다중 공선성이란 독립변수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표 9〉 4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경제활동인구	교육수준	GNI	1인당 GNI
경제활동인구	1	0.98345	0.98711	0.98866
교육수준	0.98345	1	0.98866	0.98572
GNI	0.98711	0.98370	1	0.99985
1인당 GNI	0.98866	0.98572	0.99985	1

〈표 10〉 4개 독립변수와 공연건수간의 중회귀분석 결과

	B (계수)	표준편차	t-통계량	p-값
(상수)	-7432.31	3725.22	-1.99513	0.081
GNI	9.254058	9.530739	0.97097	0.360
교육수준	2879.338	3799.481	0.757824	0.470
경제활동인구	41.16101	20.73643	1.984961	0.082
1인당GNI	-564.061	550.475	-1.02468	0.335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을 위해 〈표 9〉의 4개 변수중 개인소득을 경제적 요인의 대표 지표로 삼고, 도시/비도시, 공연장수를 사회적 요인지표로 추가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시/비도시 변수 추가로 인해, 시계열 자료가 아닌 2010년 한 시점의 16개 도시/비도시, 지역별 공연장수, 지역별 개인소득을 가지고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도시/비도시는 질적인 독립변수로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는 1 값을 비도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0 값으로 치환하여 〈표 11〉과 같이 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도시변수, 공연장수, 개인총소득 3개 독립변수

www.kci.go.kr

모두 유효한 변수로 증명 되었으며 (t2 〉 1, p〈.05), R^2=97.17%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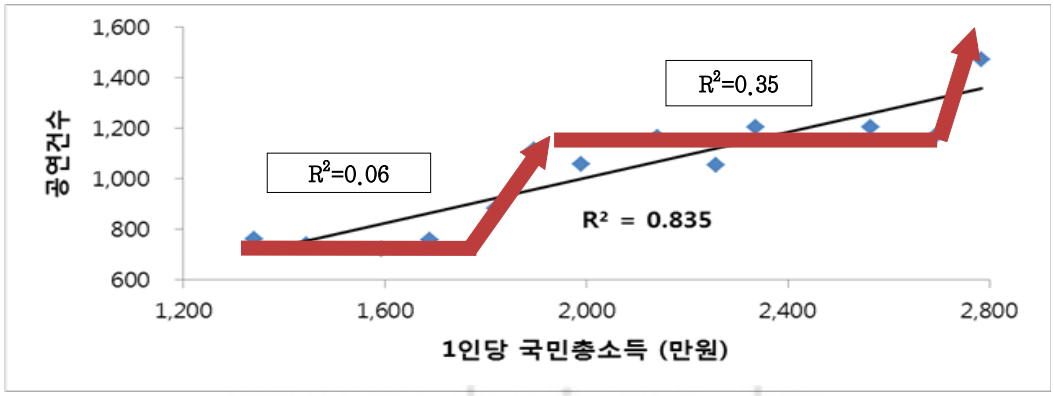
〈표 11〉 도시변수, 공연장수, 개인소득과 공연건수와의 중회귀분석 결과

	B (계수)	표준편차	t-통계량	p-값
(상수)	-37.7333	10.08118	-3.74295	0.003
도시 변수	47.9409	13.40073	3.577484	0.004
공연장수	1.944142	0.197446	9.846463	0.000
개인총소득	-0.69824	0.308937	-2.26014	0.043
	R^2 = 0.971		F=137.1898	

V. 논 의

1. 개인 소득 (1인당 GNI) 지표와 공연건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층분석

문화예술도 소비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분석되어 지는 것이 개인소득 즉 1인당 총소득 (GNI) 수준이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1인당 총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연건수는 증가함을 볼 수 있었고, 이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친 연관성 분석의 결과이다. 하지만, 독립지표와 종속지표간의 연관성을 좀 더 단기적 시간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분석이 가능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2〉의 붉은색 선을 보면, 1인당 총소득과 공연건수간의 관계가 선형적 관계가 아닌 계단식 관계 (step function)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 구간, 소득 1,200만원 ~ 1,800만원 구간, 2,000만원 ~ 2,800만원 구간에서는 R^2=0.06과 R^2=0.35로 두 지표간의 상관관계가 없음 (p〉.05)으로 나타냈다. 이는 1인당 총소득이 어느 임계점을 넘기 전에는 개인소득이 증가해도 공연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단식 관계는 기존 논문에서 언급되었던 선형적 관계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각 임계점 부근에서 한국 무용공연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림 2〉 1인당 GNI 구간과 공연건수간의 장기적 및 단기적 관계분석

www.kci.go.kr

〈그림 2〉에 나타난 2개의 임계점은 소득과 시점(시기)으로 정의 될 수 있다.

- 1차 임계점 – 소득: 1,800-2,000만원, 시점: 2004년
- 2차 임계점 - 소득: 2,800-3,000만원, 시점: 2012년

문예연감의 현황분석 내용(2005년 문예연감, 무용현황분석, p2~4)을 분석한 결과 2004년 한국의 무용계의 여러 변화는 다음과 같이 재정리 될 수가 있다. 공연의 대중화, 공연지역의 탈 서울화이다. 첫 번째로, 공연의 대중화는 당시 무용공연은 순수예술로서의 수준 높은 공연들도 많이 공연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춤들의 내용성과 공연의 확대가 눈에 띄는 시점이였다. 무용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무용예술이 긍정적으로 정착되었다. 공연뿐만이 아니라, 무용 교육도 기존의 전문가 양성에서 벗어나 생활 무용등과 여가를 즐기고 자기계발의 목적으로 하는 실용적인 측면으로 확산되었으며, 일반 무용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용교사, 강사풀제(현 예술강사지원사업)가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두 번째, 탈 서울화는 전체 공연에서 서울공연 비중이 처음으로 30%이하로 떨어졌으며, 성남아트센터, 고양 어울림누리극장등 서울을 벗어나 지역의 공연 활성화가 시작된 시점이였다. 모리스베자르 발레단이 서울이 아닌 대전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순회공연을 가졌으며, 성남아트센타의 개관은 지금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틀을 벗어나 지역적 다각화의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또한, 무용공연을 광범위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 문화 향수의 소외계층으로 인식되었던 지방에도 무용공연의 저변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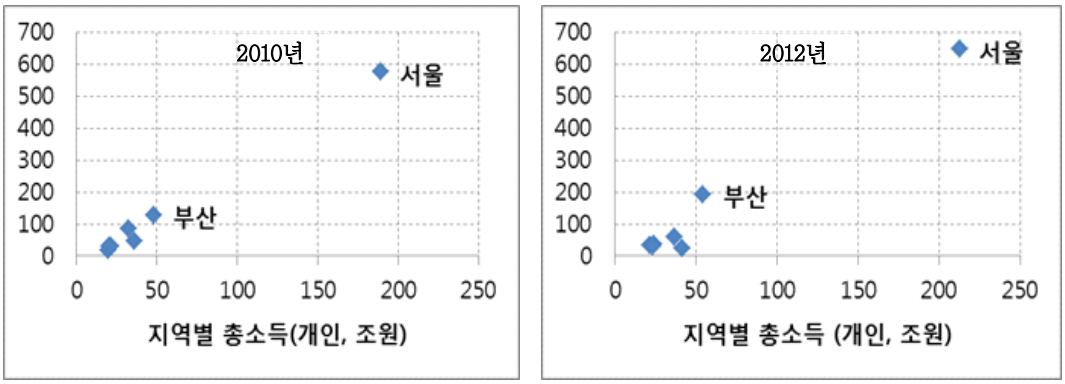
2차 임계점인 2012년(2013년 문예연감, 무용현황분석, p1~2)에는 한국무용공연 시장의 상업화 (또는 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상업화의 정의는 공연자체가 손익 분기점(Break even point)을 달성해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용공연이 단지 건당 몇 번의 횟수증가로 각 공연에 대한 수익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러나 장기공연 또는 상설 공연이 무용공연시장에 등장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무용축제의 증가는 단순 대중화를 넘어, 상업적 운영 측면에서도 그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대관령 국제음악제 "지젤 파드되/아폴로", 선교무용제인 "Argon Dance Festival", 정동극장 "2012미소2(MISO)" 등의 공연이 증가하였고, 또한, 정동극장의 "2012미소"가 402회 공연된 것과 더불어 '이원국의 "월요발레이야기"가 53회, '이원국의 "재미있는 발레이야기"가 35회, 춤다솜무용단의 "키스 더 춘향"이 16회, 박명숙의 춤 "윤무"가 12회의 공연실적을 보인 것은 국공립 단체나 대형 발레 공연도 6~7회를 넘기지 못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단체의 장기 공연은 한국 무용 환경에 도전장을 낸 과감한 시도라 볼 수 있으며, 장기공연 횟수의 증가와 함께 대중성을 겸비한다면 얼마든지 무용공연도 상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37]

36) 문예연감(2005).
37) 문예연감(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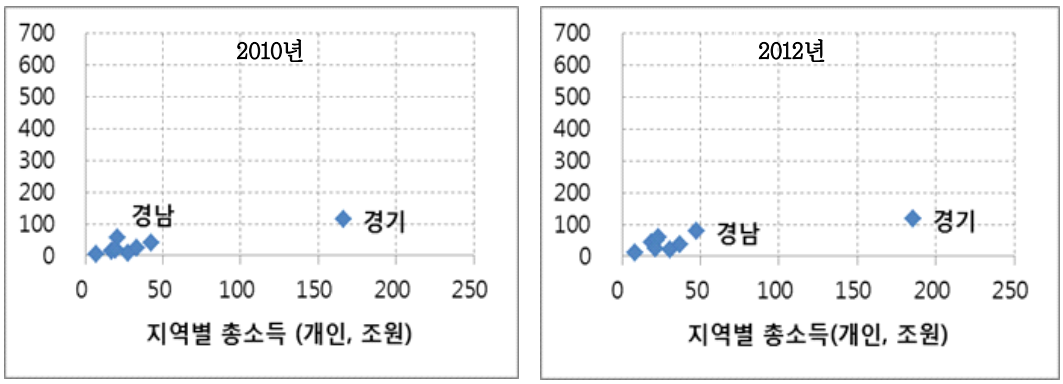
www.kci.go.kr

2. 도시 vs. 비도시 지표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결과에서 한국무용공연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대표 종속변수로 공연건수를 선정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지표를 독립변수로 삼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를 고정하고 지역적 요인에 따른 변화를 심층 분석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디니즈와 마샤도(Diniz and Machado,2009)에 따르면 공연수요를 결정짓는 것 중 하나로 지역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인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공연수요는 대도시에 편중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림 3〉, 〈그림 4〉은 종속변수는 공연건수로 독립변수는 지역별 개인 총소득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의 정의로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한 것이다. 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으로 분류를 하였으며, 비도시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로 분류하였다. 총소득에서 전체가 아닌 개인 소득을 사용한 것은 개인별 실질 소비와 좀 더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3〉 도시별 총소득규모에 따른 공연건수 변화



〈그림 4〉 비도시별 총소득규모에 따른 공연건수 변화

〈그림 3〉, 〈그림 4〉을 보면, 지역별 총소득(개인)이 50조원 이하, 공연건수가 연간 100건 이하의 경우에는 총소득 증가에 따라 공연건수가 증가함을 보이고, 이는 도시와 비도 시간에 차이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는 소득과 공연건수간의 연계성이 제 증명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총

www.kci.go.kr

소득 50조원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도시 (서울, 부산)와 비도시 (경기)간의 총소득에 따른 공연건수 증가속도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경우, 2012년 공연 193건, 총소득 54조원으로 나타나며, 총소득 증가에 따른 공연건수 증가는 서울이 있는 좌표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반면, 경기의 경우 총소득이 50조원을 넘어 2010-12년 150조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건수는 1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경제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은 1인당 공연장수 및 1인당 총소득을 도시, 비도시별로 정리한 것이다. 데이터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공연건수와 연계성이 가장 높았던 인프라 즉 공연장수와 비교 분석을 하였다. 서울의 경우, 공연장수는 357개로, 인구 백만 명당 34.6개의 압도적인 숫자로 높아,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부산 vs. 경기는 서울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2012년 부산은 총 193건의 공연(건수)이 있었으며, 총소득은 54조원 이였다. 경기는 총 119건의 공연(건수)이 있었으며, 총 본원소득은 185조원으로 부산의 3.4배 수준이었다. 총 공연장수도 경기가 부산보다2.7배 (93개) 많았으며, 1인당 공연장수는 부산이 1.2배 (1.1개/백만 명) 높았다. 따라서 공연장수로 본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두 번째는, 개인당 총소득과 관련해서 분석하였다. 총소득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소득이 문화소비지출에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표 12〉을 보면 서울이 18,323천원, 경기가 14,078천원, 부산은 13,448천원으로 나타나, 경기와 부산이 매우 유사함을 보였다. 경제적 및 사회적 요인의 대표지표인 총 공연장수, 1인당공연장수, 1인당 소득으로 분석을 해보았지만, 경기와 부산의 공연건수의 차이는 충분이 설명이 되지 못하였다.

〈표 12〉 도시 vs. 비도시별 경제적/사회적 주요지표 – 2010년 기준

구분		공연장수 (개)	인구수 (명)	공연장/백만 명	지역별총소득 (개인, 십억 원)	1인당 총소득 (천원)
도시	서울	357	10,312,545	34.6	188,954	18,323
	부산	51	3,567,910	14.3	47,981	13,448
	대구	48	2,511,676	19.1	32,309	12,863
	인천	39	2,758,296	14.1	35,927	13,025
	광주	29	1,454,636	19.9	19,682	13,531
	대전	25	1,503,664	16.6	21,486	14,289
	울산	14	1,126,298	12.4	20,305	18,028
비도시	경기	144	11,786,622	12.2	165,932	14,078
	강원	49	1,529,818	32.0	17,071	11,159
	충북	27	1,549,528	17.4	19,316	12,466
	충남	47	2,075,514	22.6	27,544	13,271
	전북	37	1,868,963	19.8	20,763	11,109
	전남	36	1,918,485	18.8	19,711	10,274
	경북	46	2,689,920	17.1	33,124	12,314
	경남	54	3,290,536	16.4	42,824	13,014
	제주	18	571,255	31.5	7,201	12,605

3. 수요관점에서 본 무용시장의 한계와 추가 보완 필요점

본 논문은 수요관점에서 어떤 동인이 존재하고, 동인별 상관관계를 통해 시장을 증명하는 것이 초기

www.kci.go.kr

목적이였다. 하지만, 〈그림 2〉, 〈그림 3〉, 〈그림 4〉을 보면 수요관점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문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림 2〉는 무용공연 시장의 성장 요인 중 1인당 총소득(GNI)의 임계점을 분석한 것이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1인당 총소득(GNI)와 무용공연시장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나, 단기적 관점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선형적 관계가 아닌 계단식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다. 선형적 관계는 수요에 의한 시장성장이며, 계단식 관계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시장분석이다. 앞의 12쪽의 〈그림 2〉에서 보여진 2개의 임계점 시점에는 다음과 같은 시장변화가 있었다. 지역의 영역 확대및 대중화는 일부 수요적 측면의 동인으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공연콘텐츠는 공급적 측면의 동인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 공연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상업화까지 이룰 때 2차 임계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3〉 무용공연시장 성장의 임계점 분석

구분	공연 콘텐츠	지역 coverage	대중화
1차 임계점 소득:1,800-2,000만원 시점: 2004-2005년	무용공연 내용이 일반 대중이 이해살수 있는 수준 또는 주제로 변화	탈 서울화 (서울공연 비중이 30% 이하)	일반인 참여
2차 임계점 소득:2,800-3,000만원 시점: 2012년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스토리라인을 보유함	수도권지역 공연 비중 감소, 비수도권 지역의 공연증가	상설공연으로 상업화 단계 진입

경기 vs. 부산의 공연건수 차이도 수요 측면으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표는 경기가 우세하거나, 비슷함에도 공연건수는 연간 100여건에 머물고 있다. 부산이 경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용공연을 만드는 인력 (무용수, 연출/무대/조명 인력 등)이 풍부하거나 밀집도가 높을 수 있다. 즉 공급자 관점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은 것이고, 경기는 아직 임계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무용공연시장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사회적 지표로 알아보기 위하여 국민총소득(GNI), 개인총소득, 문화소비금액을 경제적 요인으로, 총인구(경제활동인구), 공연장수, 교육수준(대졸이상비중)을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한국의 무용공연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직까지 한국의 무용공연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공연 횟수 보다는 공연건수이며, 2000~2012년 한국 무용공연 시장은 아직까지 상업화 이전의 단계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사회적 요인들은 개별적으로는 공연건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소득, 교육, 경제활동 인구 등은 변수 간 높은 연계성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되었다. 추가로 개발된 개인소득, 도시/비도시, 공연장수 지표로 유의성($p<0.05$)과 97.17%로 높은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다.

www.kci.go.kr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무용시장은 수요중심의 시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자 중심, 즉 문화공연의 수준 등이 시장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분석이 되었다. 〈그림 2〉와 같이 계단식 및 선형적 그래프로 이중분석이 가능한 이유이다.

공연수요가 계단적 성격과 선형적 성격을 보인다는 것은 선형적 성격은 거시적 지표인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수요관점의 분석이다. 하지만 계단적 성격 즉, 문화적 콘텐츠, 무용 인력의 수준 등은 공급적인 측면으로 해석되어진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무용공연 수요의 발전 양상이 해외사례나 다른 예술장르에서도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기존 연구 사례가 부족하여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무용인력 육성이나 콘텐츠 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과 무형성, 일회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면 다른 예술장르도 유사한 패턴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본 논문은 무용공연시장의 수요관점에서의 경제적·사회적 요인에 의한 무용공연 수요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무용공연시장의 발전이 수요만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공급자 관점의 후속연구의 보완을 통해 무용공연 시장의 수요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즉, 문화콘텐츠, 무용인력, 인프라 등의 공급자 관점에서의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다른 예술 장르나 해외에서도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www.kci.go.kr

■ 참고문헌

고정민(2003). 산업화에 접어든 공연예술. 삼성경제 연구소.

고정민(2007). 문화콘텐츠 경영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일현(2014).『EeasyFlow회귀분석』. 한나래 아카데미.

Cohen, J.(199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illsdale, New Jersey.

송윤경(2010).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현택(2002). 지역 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만제(1997). 한국 PC통신 문화에 관한 연구: Pierre Bourdieu의 장, 아비투스, 문화실천 개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진수영(2008).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다각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최현주(2002). 무용공연 활성화를 위한 전략변수의 탐색에 관한연구 - 시장지향성과 사회화 수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황순학(2014). 오페라 공연예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객유형분석과 유입전략.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성제환(2003). 문화·예술상품 소비결정요인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 -문화·예술상품의 체험재적 특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 10:87-113.

성제환(2012). 문화 소비자본이 문화·예술상품 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문화경제학회 문화경제연구』, 15(1):67-93.

윤대식, 진원형, 김상황, 육태숙(2003). 대구시민의 전시공연문화 수요특성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15(4):21-42.

이창진, 김재범(2013). 문화예술수요 결정요인에 대한 구구가 간 비교 연구-노동시간과 가계지출, 그리고 문화서비스 지출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예술경영연구』, 26: 83-106.

이진면·최용재(2011). 가계의 문화서비스수요 결정요인 분석.『산업경제연구원』, 24(1): 203-217.

최동길, 전병준, 박찬희(2011). 국내 공연산업의 수익구조에 관한 연구.『예술경영연구』, 8: 5-14.

최영섭, 김민규(2000). 한국의 문화소비 결정요인에 대한 일고찰: 부르디외의 문화자본론에 대한 실증분석,『문화정책논총』, 12:229-260.

허식, 윤수영(2013). 문화서비스의 가구 소비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재정정책논집』, 15(4): 21-53.

Diniz, S. & Machado, A.(2011). Analysis of the consumtion of artistic-cultural goods and services in Brazil.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35:1-18.

Francesca Borgonovi(2004). Perfoming arts attendance: an economic approach. *Applied Economics*, 36(17):1871-1885.

www.kci.go.kr

Withders, G.(1980). Unbalance growth and the demand for performing arts: An econometric analysis *Southern Economic Journal*, 46(3): 735-742.

Ziba, M.(2009). Full-income and price elasticities of demand for German public theatre-income. *Journal of cultual Economics*, 33(2): 85-108.

문예연감(2005).

문예연감(2013).

문화향수 실태조사(2011).

공연예술 실태조사(2013).

논문투고일 2014. 08. 13
심 사 일 2014. 08. 19
심사완료일 2014. 08. 29

www.kci.go.kr

Abstract

Market Demand Analysis of Dance Performing Art based on Economic and Social Factors

Lee, Heeyoung* · Park, Inja**
Ph.D Candidate, Department of Dance,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Professor, Department of Dance, Sookmyung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arket growth of Korean dance performing art and economic, social factors with holistic and macro view. The correlations of Korean market demand with economic drivers and with social drivers are proven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ith 2000-12 data period.

Moreover, dual market growth trends are observed. In long-term, 12years, market growth is driven by the personal income, but in short-time, 4-5 years, the level of personal income did not give any significant impact on market growth. During the short-term, Korean market is diversified in topic, audience and so on, which might be explained that market growth is affected by not much demand factor but supply factors in short-time.

In conclusion, economic and social factors are proved as key demand drivers for Korean dance performing market growth. Additional studies on supplier perspective are needed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short-term growth.

Keyword: performing dance(무용공연), performing market(공연시장), market demand(시장수요), economic factor(경제적 요인), social factor(사회적 요인)

www.kci.go.kr